

함께하면 깊은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 대강절 둘째주

오늘은 대강절 둘째주일입니다.

2. 12월 행사안내

12월17일 (토): Carcano감독 교회방문.

12월18일 (주일): PIM 강단교환 주일

12월25일 주일 저녁, 성탄 축하 예배

12월31일 송구영신예배

3. 12월 18일 PIM 강단교환 주일

12월18일(주일)에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의 김낙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같은날 담임목사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4. 홈리스 연합사역

이번 주 토요일 12월10일(토) 오전 7시에는 홈리스 사역을 후레즈노 지역 교회와 함께합니다. 준비기도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30분에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홈리스 사역은 새벽예배 후 출발합니다.

5. 한국학교를 시작합니다.

한국학교를 2월4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후원 바자회를 시작합니다. 초대장을 확인해주시고 많은 협조 바랍니다.

6. 토요 축구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7:30분에 뷰케넨 고등학교에서 축구모임을 시작합니다.

7. 교회학교

12월18일에 진저브레드(Ginger Bread) 콘테스트가 있습니다.

8. 담임목사 일정

목회수양회: 12월12일(월)-16일(금)

예배위원 안내 및 봉사자

	회중기도	성경봉독	점심봉사
12월04일	이수경 집사	차석준 집사	홍윤기 임동재 구자홍
12월11일	김숙진 권사	이수경 집사	안광빈 최승희 김현덕
12월18일	홍윤기 권사	김숙진 권사	최성보 김규현 배제임스
12월25일	윤문섭 장로	홍윤기 권사	구자홍 김형기 윤문섭
<b>12월안내</b>	김현숙 김은정	<b>12월초침점화</b>	구경숙 안미나



Fresno 후레즈노  
Korean 한인연합감리교회  
United Methodist Church

1726 Pollasky Ave Clovis, CA 93612 (559)299-0240  
www.fkumc.net fkumc@fkumc.net

목회자 칼럼

다른 삶, 그리스도인

에밀 아자르의 소설 <자기앞의 생>에서 주인공 모모가 거꾸로 도는 필을 구경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요, 자동차는 뒤로 굴러가고,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던 집의 파편들이 바로 눈앞에서 단번에 다시 모여들어 본래의 집이 됩니다. 총알은 시체 속에서 튀어 나와 기관총 속으로 들어가고, 살인자들은 후퇴해서 창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들어갑니다. 쏟아진 물이 일어나 컵 속으로 들어가고,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다시 튀어 올라 뱉은 사람의 입속으로 들어갑니다.”

박완서의 소설에도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한 노인과 한 소년이 살 만한 고장을 찾아 떠돌고 있었습니다. 해매던 끝에 그들이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도착한 곳은 물이 맑은 도시였습니다. 노인과 소년은 희망을 가지고 그 도시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도시 입구에서 그들은 황급하게 도망치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왜 도망을 치십니까?”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요?”

“감자를 감자라고, 양파를 양파라고 한 죄입니다.”

“그게 어쩌서 죄란 말인가요?”

“이 고장 임금님은 사물의 이름을 바꿔 부르기를 좋아합니다. 양파를 감자라고 하고 사과를 배라고 한다든지 말입니다. 그러고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처럼 사물을 부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감자라고 하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속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기존의 질서와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한 낯설음입니다. 작가의 의도는 세상이 치닫는 목표점을 향해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기를 세상은 질서라는 이름으로 명령하지만, 작가들은 과연 그 지향점이 훌륭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것은 처음 안내받은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은 비슷한듯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아마, 이런 차이를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목사가 되었는가?라는 질문은 받으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해 늘 저는 고민하면서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방황하는 목표점과 다른 목표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는, 계획, 노력과 헌신 이 모든 것이 주님을 앞서가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좀더 구체적인 실천방법은,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을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월10일 토요일 홈리스 사역을 합니다. 1년에 한번 제법 무리해서 다른 교회와 연합으로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 다운 작은 실천입니다. 다같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Fresno Korean UMC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예수님의 제사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주일오후 12시30분 예배인도: 김규현 목사

입례찬양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경배와찬양 Praise & Worship	찬양팀		
❖ 입례송 Anthem	다함께	19장 (통44장)	

고백			
❖ 신앙고백 Confession	다함께	사도신경	
❖ 영광송 Gloria Patri	다같이	3장	
기도 Prayer	이수경 집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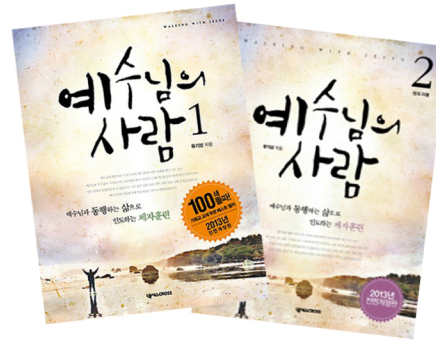
말씀선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1:72-75	
설교 Sermon	김규현 목사		

기다림: 주님이 기억하셨다.

헌신과 나눔			
봉헌송 Offering	다함께	216장 (통356장)	
❖ 찬양 Hymn	다함께		
교회소식 / Announcement	인도자		
❖ 축도 / Benedicton	김규현 목사		
❖ 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중보기도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1. 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위해: 영적갱신, 섬김과 나눔의 공동체
  2. 목회자와 사역자들을 위해
  3. 교회리더들을 위해: 모든 직분자와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 부서를 위해
  4. 교회학교사역과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5. 질병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6. 2016년 기도제목을 위해 (개인별)
  7. 교인들 사업장을 위해
  8. 후레즈노 교회 주중사역을 위해
  9. 김덕수 목사를 위해
  10. Rev. Debra Brady감리사와 Bishop Minerva G. Carcaño을 위해
- 12월 생일자: 김현덕 (12/24) 김형기(12/13) 이명길(12/24)
- ❖ 함께 나눌 기도제목은 알려주시면 새벽예배와 중보기도회를 통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2016년 성경공부 예수님의 사람

1속모임(은혜속)

지난주 헌금 통계

주일헌금	정윤희 김토마스 김혜진 오상열 임수호 조오화 최승희 최미란 교회학교 무명
감사헌금	김규현 홍윤정 이하늘 홍윤기 김의숙
십일조	양정식 윤문섭 임경희 이수경 제임스리 홍윤기 김의숙
기타	합계 \$1,613.00

예배안내

새벽기도회	화-토 새벽 6시	바울서신 강해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예수님의 사람 회의실
주일예배	낮: 12시30분 저녁: 7시	교회력설교 주일저녁 찬양예배
토요일아침성경공부	아침 7시	예수님의 사람

